

回顧와 展望

漁 港 協 會

投資 확대 先導 業界에 寄與

金 永 煥 <韓國漁港協會 常務理事>

한 해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온 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가올 날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이런 회고는 하나의 역사

적 사실로써, 증거로써, 우뚝 설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항들을 일단 전제로 하다면 우리 한국어항 협회의 지나온 1년은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년간 협회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해온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 협회기능강화와 역할 증대
2. 어항관련사업의 적극 개발
3. 봉사체제의 확립과 회원 친목도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협회기능강화와 역할증대에 관한 사항부터 회고해보면 '88년도 한국어항협회의 업무 서막은 1월 15일 창간, 발간된 월간 '어항소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비록 타블로이드판 4면에 불과한 신문이긴 하나 엄연한 협회의 기관지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발족한지 이제 겨우 6개월 남짓한 협회이고 보니 협회의 성격에서부터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생소하기 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월간 '어항소식'과 함께 계간 '어항'지가 해 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사업은 어항에산확대운동의 전개였다. 이 사업은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지난 5월 14일 협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회원사, 72개 수협 및 각 언론기관에 어항투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 건의문에서 협회는 어항이 어업의 근거지로서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이며, 어촌과 지역사회의 핵으로써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벽 역할을 하는 등 다면적 성격을 지닌 공익시설임을 감안, 제 6 차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

중 적어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 지정항의 기본시설만이라도 완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건의문이 꼭 주효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공식적인 어항인의 위치를 선언하는 대전환점이 됨으로써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으나 '89년도 어항투자예산이 증액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어항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 나라 어항에 대한 현실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 '88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회원사가 참가한 가운데 동남아 태풍진로권국가 어항시설 시찰을 다녀왔다.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각국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어항의 중요성과 앞으로 시공시 참고해야할 일들을 세세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또한 어항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바르게 제고하여 어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어항사진을 공모, 은상 2점을 비롯하여 모두 6점을 선정, 시상하

기도 했다. 공모된 이 어항사진은 앞으로 협회의 주요한 자료로서 오래도록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에 비하여 회원가입 적극 확대운동은 그 노력에 비하여 결실이 미진하였음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회원은 13명 가입으로 목표 10명을 넘었으나 단체회원은 당초 50개 단체 가입 목표에 13개 단체만이 가입함으로써 목표에 크게 밀돌았다.

그 원인은 대체로 가입대상 단체를 일선 수협으로 잡았었는데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각종 단체가 난립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어항인들의 단결과 위치 정립을 더욱 촉구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 어항관련사업의 적극 개발을 위해서 전개한 사업으로는 전국 1·3종 어항 관리실태조사 및 항공사진촬영을 들 수 있겠다.

전국 1·3종 어항에 대한 종합개발과 정비사업 및 어항행정의 기본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실시한 이 항공사진촬영은 시기가 촉박하여 우선 '88년도에는 마량, 녹동, 안도, 돌산 등 11개항을 끝내었다. 그리고 나머지 50개항은 계속사업으로 '89년도에 이월 실시키로 하였는데 아마 이 어항자료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어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획기적인 자료로 어항에 관한 모든 부문에서 적극 활용되리라 확신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집행되어온 어항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착수하였다. 특히 우리 협회는 수산청 관리어항 업무대행을 검토, 협의 중에 있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업은
 어항에산확대운동의 전개였다.
 이 사업은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일본의 어항관계 법규자료를 수집, 어항법이 개정될 때 전 어항인들의 입장이 공고해 질 수 있는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봉사체제의 확립과 회원친목도모에 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경로에서 밝힌 바 있다. 왜냐하면 협회의 할 일은 회원에 대한 무한한 봉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동안 협회는 어항관련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수렴, 어항시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수협조합장, 어촌계장, 선주 등 340명을 대상으로 어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8%가 어촌에서 가장 열망하는 숙원사업이 어항시설이라 회신해 왔고, 특히 어항시설 가운데에서도 방파제시설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60.7%였다. 이것은 어항시설의 질박성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로써 앞으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밖에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어항포어를 공모하여 “어선은 내 몸같이 어항은 내 집같이” 등 4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이 포어를 전국의 수산기관·단체 특히 일선 수협과 어촌계에 이르기까지 부착토록 하여 어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일본전국어항협회 발간 어항구조물 표준설계법을 번역, 수산청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한·일어항협회의 활발한 교류를 들 수 있겠다.

일본 전국어항협회장 초청으로

제 40 회 전국어항대회에 본회 손정식 회장이 참석, 현지 어항을 시찰하는 한편 어항관련자료를 다수 입수하였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을 초청함으로써 본회의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지금은 비록 우리 나라와 일본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 시킨다면 정보시대에 걸맞는 세계 첨단 어항시공법 등을 깨우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의욕에 비하여 아직은 결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89년도엔 무엇보다도 협회의 위치, 어항인들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기 위하여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4가지 중점사업을 마련해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1. 자립기반의 구축
2. 협회 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
3. 어항 관련사업의 추진
4. 회원 친목활동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협회의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확대 재편과 다양한 재정적 기초의 마련, 그리고 기금조성의 확대 및 각종 수익사업의 적극 개발에 나설 작정이다.

●●●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단결된 협회의 모습을
 보이는
 새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
 ●●●

또한 어항 개발의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21세기를 향한 어항 종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어항 개발 투자 규모의 과감한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항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올 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선진 및 태풍진로권 어항시찰을 다시 실시하여 어항인들의 안목을 넓히는데 한 몫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앞서 설명한 1·3종 어항 항공사진촬영을 마무리하여 전국에 산재한 주요 어항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항별로 일목요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그밖에 올 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난 어항법 개정자료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끝으로 협회 회원간의 친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어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준은 물론 회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 정부와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단결된 협회의 모습을 보이는 새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평범하지만 심오한 우리의 속담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그런 협회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89년이 되었으면 한다.